

2021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1.08.12. (목) 11:00
2. 장소 : 비대면 회의(Zoom Cloud Meeting)
3. 참석자(총 14명 중 14명 참석)
 - 가. 교원대표 : 박상도, 한승준, 김종현, 김형중, 민병걸
 - 나. 직원대표 : 조현미, 이혜숙
 - 다. 조교대표 : 유황비
 - 라. 학생대표 : 정수빈, 류수경
 - 마. 동 문 : 최형심, 이귀우
 - 바. 외 부 : 김태현, 백성기
4. 불참자 : 없음
5. 심의 안건
 - 가. 대학원 학과 및 과정 신설(안)
 - 나. 대학원 학칙 개정(안)
 - 다. 직제 개편(안)
 - 라.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 마. 개방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1. 심의 안건 - 대학원 학과 및 과정 신설(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대학원장이 일반대학원에 공공빅데이터관리학과 공공빅데이터관리전공 석사학위과정(학·연·산 협동과정), 바이오헬스공학과 화장품공학전공, 세포응용공학전공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학과간 협동과정), 조형학과 박사학위과정 신설(안)과 이와 관련하여 대학원 학과 및 과정 신설 내역과 학·연·산 협동과정, 학과 간 협동과정 운영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명시하기 위한 「대학원 학칙」 개정(안) 대하여 설명하다.

○ 대학원 학과 및 과정 신설(안) 검토 시 신설학과의 산학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분석이 수반되었는가.

- 우리 대학원의 경우, 그동안 산학 연계에 있어 취약한 부분이 있었으며, 학과 교수 중심으로 대학원 교육이 이루어졌다. 일부 학과에서 교수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산학 연계를 진행하고 있지만, 학칙 등을 통해 제도화되지 않아 한계가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다. 점차 융복합전공 신설, 산업체 연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원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 공공빅데이터관리학과는 학·연·산 협동과정으로서 협약을 체결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의 우수한 인재를 교수요원으로 영입하여 수업을 개설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학생 모집 계획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원은 연구 과정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역량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공공빅데이터관리학과와 NIA와의 협약을 통한 핵심 연구인력 활용 방안, 바이오헬스공학과와 유명 외부 협동교수 영입 방안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NIA와 협약 체결 시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의 전문인력을 교수요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NIA와 협의하였고, 협약 내용에도 이를 포함하였다. 공공빅데이터관리학과와 NIA의 협동과정으로서 학과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의 학생 지도를 담당할 NIA의 교수요원을 우리 대학의 겸임교원으로 초빙할 수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NIA와 협의하여 결정한 교과목별 담당본부는 교과과정 편성 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바이오헬스공학과와 NIA의 경우에도 기존에 교수, 학생, 산업체 간 연계가 진행되고 있던 부분이 실마리가 되어 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학과를 신설하고자 한다.
- 학과 신설이 확정된 후, 협력 가능한 자에 대해 겸임교원으로의 초빙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지금 진행하는 대학원 학과 신설 건은 대학원에 변화가 필요하여 돌파구를 찾던 중 시작하게 된 것으로 아직은 모두 완성된 단계가 아니며, 순차적으로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학·연·산 협동과정을 우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므로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 특히, 학생 모집이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는데, 대학원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첫 학생 모집이 중요한 만큼 이번 신입생 모집에 있어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
- 공공빅데이터관리학과는 인문사회계열, 기타 비IT계열 등 모든 전공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다. 이들이 학부에서의 전공 영역과 더불어 데이터 관리에 대한 이해와 적용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융복합을 통한 자기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원에 있어서도 NIA의 핵심적인 분들을 모셔서 교과목 강의를 비롯하여, 공동지도교수제도 활용을 통해 원생 지도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우리 대학 내에서도 협력이 가능한 분들을 협력교수로 위촉하여 긴밀한 지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학과 신설이 확정되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우리 대학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NIA와 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NIA의 명성과 우수 연구인력은 홍보의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이다. NIA와 협정한 전문인력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우리 대학의 협동과정에 대한 지원 계획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유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을 확보하고자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 입시 모집 요강이 나가기 전에 이러한 작업을 완료한 후, 학생 모집을 추진하여 목표 모집 인원을 최대한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교원을 중심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행정학 분야의 경우, 공공빅데이터관리분야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관련 학회를 통해 타 대학의 학부생들에게 학과를 홍보하고, 학생들을 추천 받으려고 계획 중이다. 또한, 우리 대학 학부생에게도 IT계열 비전공자도 부담 없이 진입하여 차근차근 학습하여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학원이 새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계획한 학과 신설이며, 나아가 교원들이 대학원생의 부재로 연구과제나 연구비 수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스스로 분발하여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학·연·산 협동과정과 학과간 협동과정은 조기 졸업과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하게 되어 자칫 등록금 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검토는 선행되었는가.
 - 우리 대학원에서는 수업연한 단축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대학원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원의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장고의 논의과정을 거친 결과, 그동안 우리 대학이 시행하지 않았던 부분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수업연한을 단축하면 등록금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우선은 학생이 확보되어야 대학원이 운영될 수 있으므로 학생 모집을 위해 수업연한 단축과 계절학기 수강을 추진하고자 한다. 사회적인 수요가 많은 분야의 전공,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을 협동과정으로 신설하고, 학·석사 연계 과정, 계절학기 제도를 활용하여 취업 준비생들이 투자하는 비용이나 시간으로 단기간에 학위 취득이 가능하고, 취업에도 유리하며, 빠른 사회 진출이 가능함을 장점으로 부각하고자 한다. 이후 신설학과의 질을 꾸준히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이다.
- 학·연·산 협동과정 학과 명칭이 “공공”빅데이터관리학과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AI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은 어떠한가.
 - 최근 많은 대학이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등 차별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도 우리 대학의 지향성과 함께 타 대학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한 명칭을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도출된 명칭이 “공공”빅데이터관리학과다. 그러나 “공공”이라는 단어로 인해 이를 민간부문에 적용할 수 없거나 민간부문과의 협력이나 진출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빅데이터관리학과 교육과정에도 AI와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교과과정 운영에 따른 경험이 일정 수준 축적되면 여러가지 가능성을 검토하여 새로운 시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특수치료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그 정원을 주로 휴먼서비스대학원으로 이관하였는데, 충원율이 저조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 휴먼서비스대학원이 폐지된 특수치료전문대학원으로부터 이관된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휴먼서비스대학원의 경우, 현재 개설된 학과만으로 입학 정원을 충원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휴먼서비스대학원에도 차별화되고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전공을 협동학과의 형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다음 단계로서 계획하고자 연구하고 있다.
- 대학원이 학과를 신설하는 과정에 있어 오늘 논의된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원으로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대학원 학과 및 과정 신설(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2. 심의 안건 - 직제 개편(안)

경영기획팀장이 학생처를 학생·인재개발처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생·인재개발처 산하에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을 신설하여 취업경력개발팀과 현장실습지원팀을 두도록 하는 직제 개편(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학생처를 학생·인재개발처로 변경하는 것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수인가. 처의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수반되는 구성원이 겪게 될 혼선이나 후속 조치와 같은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적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처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 수행의 필수요소는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 명칭을 처의 부제명으로 쓰도록 제안한 바 있어 처 명칭 옆에 부제로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을 표기하는 대학도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명확하게 조직의 성격을 구분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지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는 학교의 의지를 반영하고자 학생처의 명칭을 학생·인재개발처로 변경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은 처의 산하 기구로 배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처의 명칭 변경으로 행정 처리나 운영에 혼선과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공지하고 안내하도록 하겠다.
- 직제 개편(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3. 심의 안건 -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경영기획팀장이 학생처를 학생·인재개발처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특수치료전문대

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반영하기 위한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4. 심의 안건 - 「개방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경영기획팀장이 「개방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의 절차에 대한 교무위원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설명하다.

- 「개방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5. 기타 안건

- 우리 대학이 재정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그러한 가운데 총장 선거의 후유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법인 이사회가 구성원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전례 없는 최대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 법인 이사회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만큼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학교법인 정의학원의 법정 부담금에 대한 법인 전입금은 매우 저조하다. 대학 교직원들은 임금 동결에 이어 임금 삭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놓여 있는데 법인 이사회는 이러한 재정 위기에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매년 법인 전입금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대학평의회에서 학교법인 정의학원의 법인 전입금 목표 금액과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대학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과 노력을 대학 구성원에게 설명하도록 학교법인 정의학원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 학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난 제333차(2021.7.22.)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021년 정부 기본급 인상률에 맞추어 최소한으로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법인 사무국 직원 3인의 급여 인상 건과 특정 직원의 평직원에서 과장으로의 특별 승진 건’이 보고사항으로 기록된 것이 확인되었다. 학교법인 정의학원의 법인 전입금이 저조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 대학이 수년간 해결책을 요구하였으나, 법인은 법인 전입금을 증액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입장을 일관해 왔기 때문에 교내 구성원은 상당한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다. 2021년 정부 기본급 인상, 이에 따른 최소한의 인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의학원 정관」에 따라 일반직원이 과장으로 승진하려면 11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는데, 법인 사무국 직원의 특별 승진 건은 적절한 절차나 규정, 지침에 따라 행정적으로 「학교법인 정의학원 정관」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법인 사무국 직원의 급여 인상, 인사발령 사항이 법인 이사회 의사결정 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인지, 이번 이사회 결정내용을 보면, 과연 법인 이사회에서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통감하고 있는지 의구심까지 든다. 그럼에도 법인 사무국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여 사무국 직원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법인 사무국 직원의 임금 인상과 초고속 특별 승진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법인 이사회에 답변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 법인 사무국 직원의 급여 인상과 특별 승진에 대한 대학평의원회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낼 필요가 있다. 대학 재정 위기 극복과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에 앞서 학교법인 정의학원이 현재 서울여자대학교의 재정 위기 현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학교법인 정의학원의 법인 전입금 목표 금액, 대학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과 노력, 법인 사무국 직원의 급여 인상과 특별 승진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대학평의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법인 이사회에 답변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 대학평의원회의 역할과 성격, 개최 시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학평의원회가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비판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안건을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하려면 시간을 넉넉히 두고 상정하여 현실 타협적으로 심의 안건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한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학평의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안건을 재검토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엄정한 모습이 대학평의원회에 필요한 모습일 것이다. 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고, 회의 전 사전 질의를 통해 이를 기반으로 자료가 준비될 수 있도록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대학의 재정 현실에 대한 인식 여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 및 노력, 법인 사무국 직원의 급여 인상과 특별 승진에 대한 법인 이사회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 학교법인의 책무인 법인 전입금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면,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10년간 법정 부담금과 실제 법인 전입금 실적 자료를 작

성하여 공지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기획처는 관련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대학평의원회에 전달해 줄 것을 제안한다.

- 법인 책무성은 설치학교가 있는 모든 법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교육부에서도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각종 평가 항목과 감사 지적사항에 포함하고 있으며, 법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법인 전입금을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법인이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설치학교인 우리 대학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책무에 대해 우리가 주장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주시하고 법인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법인 사무국 직원 급여 인상과 특별 승진 건도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논의가 종료된 후에 알게 되었다.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의 취지가 관련자들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따라서, 대학평의원회의 역할로서 법인 이사회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총장님이 학교를 대표해서 법인 이사회에 이사 구성원으로서 참석하고 있으며, 제333차 법인 이사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평의원회 대표로 의장, 부의장이 총장님을 찾아뵈어 면담하는 것에 대해 제안한다.

- 의장이 법인 전입금과 관련하여 법인 이사회에 최근 10년간 법정 부담금과 실제 법인 전입금 실적을 확인하여 알리고, 법인 이사회에 법인 전입금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정의학원의 법인 전입금 목표 금액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대학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과 노력에 대한 사항과 법인 사무국 직원의 급여 인상 및 특별 승진과 관련하여 현재 대학의 재정 현황을 고려한 결정인지, 급여 인상에 있어 2021년 정부 기본급 인상, 이에 따른 최소한의 인상 등의 판단 및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 특별 승진은 적절한 절차나 규정, 지침에 따라 행정적으로 「학교법인 정의학원 정관」에 위배됨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 이를 진행함에 있어 대학평의원회가 법인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질의하는 것과 더불어 의장, 부의장이 총장님께도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6. 회의록 공개 범위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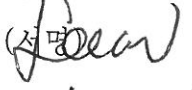
- 의장이 2021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7. 차기 회의 일정

-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 내년 1월 경 예산 자문을 위해 차기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의장이 13시 0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1년 8월 12일

의 장	김 형 중	
부 의 장	조 현 미	
평 의 원	박 상 도	(서명) 
평 의 원	한 승 준	(서명) 
평 의 원	김 중 현	(서명) 
평 의 원	민 병 결	(서명) 
평 의 원	이 혜 숙	(서명) 
평 의 원	유 황 비	(서명) 
평 의 원	정 수 빈	(서명) 
평 의 원	류 수 경	(서명) 
평 의 원	최 형 심	(서명) 
평 의 원	이 귀 우	(서명) 
평 의 원	김 태 현	(서명) 
평 의 원	백 성 기	(서명) 
간 사	하 성 호	(서명) 